



해외양계뉴스



미 국

육계 사육농가수 아칸사소주에 가장 많아

미국에서의 육계사육농가는 총 28,948가구(97년기준)이며 이 중 육계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는 아칸사소주로 육계사육농가가 전체 육계농가중 10.7%(3,106농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알라바마주(2,131), 조지아주(1,904), 노스캐로라이나(1,894), 텍사스(1,688) 등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대 닭고기 계열업체를 보면 1위가 타이슨사이고 다음으로 필그립사, 골드키스트사, 프레쥬팜사, 웨이네팜사로 나타났다. 과거 2000년만 해도 전체 닭고기 규모중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이었지만 2002년도에는 40%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

중 국

가금인플루엔자 17개성으로 확대

중국에서의 가금인플루엔자 발병이 후난(湖南)성과 산둥성(山東省)에서 보고되면서 티베트 자치구를 포함해 전체 31개 성(省)중 17개성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현재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병이 확인된 지역은 후난성의 사오둥(邵東)현과 익양(益陽)시로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43건의 조류독감 발병사례가 확인됐으며 7건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 FAO는 아시아 10개국에 번진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지금까지 8천만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고 밝혔다.(YTN)

태 국

냉동 닭고기 수출 8월께 재개 예상

태국 수출진흥청은 일본 등 수입국들이 고병원성가금인플루

엔자 때문에 취한 태국산 냉동닭 수입 금지조치를 오는 8월께 해제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국제수역(獸疫)연구소가 ‘태국의 생닭 및 냉동닭은 안전하다’고 선언하면 태국의 닭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며 그 시점은 오는 8월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태국정부는 ‘태국산 닭은 안전하다’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하고 있다.

조류독감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일본은 전체 닭 수입물량의 81%를 태국에서 수입했었고 영국의 경우 전체 수입닭의 95%, 독일은 77%, 네덜란드는 88%가 태국산이다.(YTN)

캄보디아

닭고기 대신 쥐고기 인기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캄보디아에서는 쥐고기가 닭고기를 대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신문인 ‘라스메이 캄푸체아’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수도 프놈펜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90km 떨어진 바탐방성(省)에서는 몇몇 시장에서 쥐고기가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는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후 닭고기를 먹지 말라는 권고가 있는 직후부터 쥐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즘 하루 평균 50~60kg의 쥐고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생고기의 경우 kg당 1천

200리엘(약 360원), 조리된 고기의 경우 kg당 1천600리엘에 팔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인접국인 베트남이나 태국과 비교해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가금류 산업의 피해 규모가 100만달러에 이르며 관광산업도 10% 가량 위축됐다고 밝혔다.(LK)

싱가포르

업무중 조류독감 감염자에 보상금 지급

싱가포르 정부는 업무 수행중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소속을 불문하고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양계장이나 실험실 어디든 관계없이 일을 하다가 AI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혜 자격을 주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근로자 보상법’을 개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는 지난 몇 주간 AI 예방조치를 취해온 가금류 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낭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적용 대상에는 가금류 사육농가나 도축장 종사자, 살(殺)처분 작업에 동원된 근로자들은 물론 개정 ‘근로자 보상법’이 조류독감 감염자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둔 것인 만큼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관한 실험과 연구 분야 종사자들은 물론 연구 관련 서비스와 검사 업무 종사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싱가포르 노동부는 설명했다.(ST)